

■ 특집 ■

유색인 여성들과 아이티혁명기 자유의 여정  
: 이사벨 아엔테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을 통해서

권 윤 경

I. 서론

대서양 세계에서 노예와 자유민의 신분 차이, 인종적 정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사회적 관습은 제국마다, 지역마다 다양했다. 대서양 세계처럼 제국 간, 지역 간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바다를 통한 이동이 활발한 경우 이러한 자유의 모호성은 때로는 부자유민들에게 기회의 공간이 되기도 했다. 동시에 이는 한 곳에서 얻은 자유가 다른 곳에서는 도전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노예들이나 유색인들은 자유를 획득하거나 지키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떠났으며, 동시에 어디에 가든 피부색에 따른 낙인 때문에 뒤따르는 차별이나 재(再)노예화(reenslavement)의 위협과 끝없이 싸워야 했다. 대서양 노예제는 ‘인종적 노예제(racial slavery)’였고, 비유럽인들의 피부색은 종속 상태를 나타내는 떨칠 수 없는 낙인이었다.

프랑스혁명과 아이티혁명은 자유의 가능성과 불확실성 양쪽 모두를 극적으로 확대시켰다. 프랑스령 서인도제도 식민지의 핵심이었던 생도맹그(Saint-Domingue; 독립 후 아이티(Haïti)로 개칭)에서는 1791년부터 노예들의 대반란과 함께 아이티혁명이 일어났다. 반혁명 세력들의 위협에 맞서 흑인 무장 노예들의 군사적 지원이 절실했던 혁명 프랑스는 1794년 전면적 노예해방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포고된 원칙으로서의 자유는 실제 식민지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굴절과 왜곡을 거쳤다. 또한 혁명 프랑스가 선포하고 나중에 아이티가 독립전쟁을 통해 획득한 노예해방은 다른 노예제 사회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혼란은 혁명의 시대가 촉발한 대량 이주 때문에 심화되었다. 미국 독립 혁명부터 시작된 혁명의 물결은 정치적 망명객들, 침략과 내전을

피해 달아난 난민들, 혼란을 틈타 도망친 도망노예들, 전쟁의 판도를 따라 이동하는 군인들의 행렬을 만들어냈다. 아이티혁명기 섬을 떠난 난민들의 수는 4만 5천 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신세계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 나갔다.<sup>1)</sup> 마치 오늘날처럼 혁명의 시대 대서양 세계는 난민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다.

이들 중 절반은 당연히 여성들이었고, 그 중 대부분은 유색인 자유민들과 노예들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이티혁명의 이야기는 이들의 경험을 포괄하지 못했다. 아이티혁명의 영웅 서사는 투쟁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를 위시로 한 남성 해방노예들의 무장 투쟁을 집중 조명했고, 그 반대편의 반혁명 서사는 폭도들에 의해 고통 받는 결백한 백인들—특히 백인 여성들의 수난—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유색인 여성들, 특히 노예 여성들을 중심에 놓았을 때 아이티혁명과 이 시기 자유를 위한 투쟁은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 젠더는 혁명기에 계속 요동쳤던 지위, 계급, 인종의 개념과 실천을 구성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대서양 세계의 경계선들을 가로지르며 이들이 추구하고 경험했던 자유는 어떠한 것이었을까?<sup>2)</sup>

- 1) 아이티혁명기 난민에 대해서는 R. Darrell Meadows, “Engineering Exile: Social Network and the French Atlantic Community, 1789-1809,” *French Historical Studies*, 23-1(2000), pp.67-102.
- 2) 이 주제에 대한 선구적 연구들은 80년대 말부터 출현했다. Hilary Beckles, *Natural Rebels: A Social History of Enslaved Black Women in Barbados* (London: Zed Books Ltd., 1989); Barbara Bush, *Slave Women in Caribbean Society 1650-1838*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Marrietta Morrissey, *Slave Women in the New World: Gender Stratification in the Caribbean*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9). 연구사에 대해서는 Bridget Brereton, “Searching for the Invisible Woman,” *Slavery and Abolition*, 13-2(1992), pp. 86-96 참조. 프랑스령 서인도제도 유색인 여성(특히 여성 노예)에 대한 기본적 연구들은 Arlette Gautier, *Les Soeurs de Solitude: La condition feminine dans l’esclavage aux Antilles du XVIIe au XIX siecle* (Paris: Editions caribeennes, 1985); Sue Peabody, “Nègresse, Mulâtresse, Citoyenne: Gender and Emancipation in the French Caribbean, 1650-1848,” in Pamela Scully & Diana Paton, eds., *Gender and Emancipation in the Atlantic Worl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pp. 56-78; David P. Geggus, “Slave and Free Colored Women in Saint Domingue,” in David Barry Gaspar & Darlene Clark Hine, *More Than Chattel: Black Women and Slavery in the America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Bernard Moitt, *Women and Slavery in the French Antilles, 1635-1848*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여기서 역사가들은 유색인 여성들을 어떻게 단순히 침묵된 희생자가 아닌 역사적 주체로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일찍이 이 주제를 개척한 부시(Barbara Bush)의 말처럼 유색인 여성들은 가부장제, 인종차별주의, 계급적 착취라는 “삼중의 억압”에 시달렸다.<sup>3)</sup> 심지어 혁명의 순간에도 시민-군인 동형론에 기초한 프랑스혁명의 전투적 공화주의는 무기를 든 남성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위한 특권적 통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제약된 조건 속에서도 여성 노예들은 때로는 체제와 싸우고, 때로는 체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최대한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하고자 했다. 전쟁, 혁명, 이주로 남성들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을 통해 가족과 세대와 문화가 이어진 것이야말로 이들의 생존 능력과 유연성을 입증한다.

문제는 이들을 경험 세계를 일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서 증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노예들에 대한 사료도 극히 적지만 여자 노예들에 대한 사료는 더더욱 그렇다. 남은 것은 주로 농장주들의 기록과 편지, 재판이나 범죄 기록들, 노예 양도나 판매 증명서들 속에 여기저기 흩어진 파편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들뿐이다. 예를 들어 스콧(Rebecca Scott)과 에브라르(Jean Hébrard)가 공저한 『자유의 문서들』은 1770년 서아프리카로부터 생도맹그로 끌려 온 로잘리(Rosalie)라는 여성 노예로부터 2차대전기에 이르기까지 몇 세대에 걸친 한 유색인 가족의 자유를 위한 오딧세이를 그린다.<sup>4)</sup> 그러나 그중 로잘리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적어서 저자들은 『마르탱 게르의 귀향』에서 데이비스(Natalie Zemon Davis)가 그랬듯이 동시대의 비슷한 사례들을 병치함으로써 모자란 사료 증거들을 간접적으로 채우고 상황을 추정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사료의 부족을 고려할 때 픽션은 교육적 활용도가 매우 높다. 여성 노예의 경우 파편화된 자료들이 대부분이라 사료만으로 누군가의 일생 전체를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알려진 유색인 여성들의 경우에도 군사적 투쟁에 참여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주종을

3) Bush, *Slave Women in Caribbean Society*, p. 8.

4) Rebecca J. Scott & Jean M. Hébrard, *Freedom Papers: An Atlantic Odyssey in the Age of Emancip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이룬다. 픽션은 이러한 한계들을 우회하여 여성 노예의 일상적 삶을 일대기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상상적 통로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아이티혁명을 다룬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책은 거의 없으며, 섬을 벗어난 혁명기 이주의 역사를 그린 책 역시 드물다.<sup>5)</sup> 그 중 2009년에 출간된 이사벨 아옌데(Isabel Allende)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은 드물게 혁명기 여성 노예의 자유의 여정을 그릴 뿐 아니라 수많은 유색인 여성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다른 작품들에 비해 구성과 문체가 평이하고 길이가 짧아서 훨씬 가독성이 좋다. 이 때문에 서구에서 아이티혁명을 소개하는 대표적 문학 작품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sup>6)</sup>

아옌데는 칠레 출신의 작가로 친척인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이 쿠데타로 살해당한 후 망명하여 이후 주로 미국에서 활동해 왔다. 남아메리카의 마술적 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이자 현대사의 온갖 역경을 뚫고 살아남는 강인한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페미니즘적 작품들로 명성이 높다. 이 책 역시 아옌데의 전작들처럼 격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여성의 주체적 삶을 그리고 있지만 아이티혁명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아옌데는 처음에는 카트리나 사태 이후 뉴올리언스를 배경으로 한 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료 조사 중 뉴올리언스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은 아이티혁명 후 몰려 온 만여 명의 아이티 난민이었음을 알고 작품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sup>7)</sup> 즉, 이 소설은 미국의 역사, 특히 ‘남부’의 탄생이 어떻게 아이티혁명 및 아이티 디아스포라와 엮여 있는지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아옌데의 소설을 안내서 삼아 이 소설의 주인공인 여성 노예

5) 드물게 여성 노예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는 André Schwarz-Bart, *La Mulâtresse Solitude* (Paris: Seuil, 1972)가 있지만 내용이 이 논문의 목적과 맞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았다.

6) Isabel Allende, *La Isla Bajo el Mar* (New York: Harper Collins, 2009); *Island Beneath the Sea* (New York: Harper Collins, 2010).

7) Alexandra Alter, “Isabel Allende on Superstition and Memory,” *Wall Street Journal* (2010, Apr 23), Retrieved from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48704448304575196020575568424> (검색일: 2016년 7월 1일).

자리테(Zarité)-통칭 테테-와 그 주변의 유색인 여성들이 따라간 자유의 여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다. 하지만 아옌테의 소설 자체는 그렇게 뛰어난 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정형화된 인물들은 평면적이고, 전개는 멜로드라마 같으며, 역사적 설명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다. 아래 내용에서는 소설과 함께 관련된 역사 연구들을 되짚으며 소설의 역사성을 점진해 보고 이러한 인물상 및 플롯이 도출된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는 한편, 소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다. 역사 연구와 픽션 사이의 대화를 통해 위에서 말한 사료의 한계를 보충하고 유색인 여성들이라는 침묵된 역사적 주체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대서양사와 노예제 문제를 여성사적 관점에서 넓게 조망하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집필되었기에 서인도제도 노예제 하 유색인 여성들의 삶이라는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접근 밖에 되지 못함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 II. 혁명 전야 생도맹그: 노예제 하 유색인 여성들의 삶

1770년에서 1793년까지 생도맹그를 다루는 1부는 1770년 프랑스 귀족 남성 툴루즈 발모랭이 아버지 사후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섬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이 시기는 생도맹그의 설탕 경제가 번영의 절정에 달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생도맹그 지배층이었던 대백인들(grand blancs)의 상당수는 작위를 가진 부재지주였다. 20살의 계몽주의자였던 발모랭은 처음에는 노예제 체제의 잔혹성에 질겁하지만 점차 이것이 자신과 고향의 가족을 부양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자비로운 주인’으로 정당화하게 된다. 여기서 주인 대신 노예제의 필수 요소인 공포와 잔인성의 지배를 체현하는 것은 감독관(commandeur) 캉브레이다. 농장에서는 왕이나 마찬가지로 그는 내키는 대로 강간하고, 도망친 노예들을 잡아 팔다리를 자르고, 매일 누군가를 채찍질 한다. 발모랭은 그를 혐오하지만 대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해주는 캉브레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묘사되는 식민지 사회는 발모랭의 세련된 우아함과 캉브레의

사디즘적 잔인성사이를 물 흐르듯 오간다. 한쪽에는 품격 높은 대화가 오가는 살롱, 제복 입은 노예들이 정중히 절하는 대저택, ‘서인도제도의 파리’라고 불리던 생도맹그의 중심 도시 르캅(Le Cap)의 풍요로움이 있다. 그러나 우아한 귀부인들조차 도망 노예들을 천천히 처형하는 잔혹한 의식을 부채질하며 참관한다. 중간항해(Middle Passage: 삼각무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노예들을 실어오는 중간 항로), 대농장의 혹독한 노동 조건, 노예사냥에 대한 묘사들은 연루된 모든 이들을 야수로 만드는 노예제의 지옥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서를 축약 설명하는 듯한 아엔데의 묘사 방식이 생도맹그 노예제의 잔혹한 현실을 성공적으로 재현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영미권에서 아이티혁명 소설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벨(Madison Smartt Bell)의 『모든 이들의 반란』처럼 이를 치밀하게 묘사한 작품들의 경우 지나친 선정주의라는 비판에 맞닥뜨렸다.<sup>8)</sup> 특히 여성 노예에 가해진 가혹한 폭력에 대한 묘사는 의도와 상관없이 포르노그래픽한 선정성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홀로코스트의 경우처럼 노예제라는 극단적 폭력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실험과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1부에서는 인종, 계급, 지위에 따른 식민지의 네 가지 여성 유형이 등장한다. 주인공인 몰라토(보통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 부모) 노예 데테, 퀴드룬(quadroon: 백인 남자와 몰라토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1/4 아프리카 혼혈) 자유민이자 고급 매춘부인 비올레트, 발모랭과 결혼하는 에스파냐 귀족 백인 여성 유지니아 데 솔라르,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흑인 노예 치료사 탕트 로제(‘로제 이모’)이다.

그녀는 고급 매춘부였던 몰라토 어머니에게 태어나 십대 때부터 어머니의 업을 물려받아 일하다가 발모랭과 고객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정열적이고 성적 매력이 풍부한 비올레트는 혼혈 유색인 여성에 대한 백인 남성들의 성적 환상을 종합해 놓은 모양새이다. 프랑스 식민지의 경우 초반에는 극단적인 성비 불균형 때문에 백인 남성과 유색인 여성의 결합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말부터 식민지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다른 인종간의 결합은 법적 규제와 사회적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8) Madison Smartt Bell, *All Souls' Rising* (New York: Pantheon, 1995).

불구하고 유색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축척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인구는 계속 늘어났다. 그 간극에서 몰라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환상이 생겨났다. 이들은 혼혈의 결과로 선천적으로 성적 욕망이 강하고 도덕적 자제력이 약한 ‘유혹녀’로 태어난다고 간주되었다. 백인 남성들에게 이들은 욕망의 대상임과 동시에 결혼 제도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협적 존재였다.<sup>9)</sup> 노예제를 비판하는 이들조차 식민지 사회의 타락을 두고 백인 남성이 아니라 혼혈 여성들의 성적 방종을 탓했다.

이러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구현함에도 불구하고 비올레트의 캐릭터가 생기를 잃지 않는 것은 온갖 편견들을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그녀의 냉정한 사업가 기질 때문이다. 자신을 어머니처럼 돌봐주는 흑인 여자 노예 톨라와 유사 가족을 이룬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성적 매력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보장해 줄 수단, 즉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연인인 프랑스 주둔군 대장 톨레의 청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10여년 이상 계속한다. 백인 남성의 애정은 결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매춘에 대한 비올레트의 일종의 전문가적 초연함은 식민지 사회에서 체계화된 유색인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 여성 노예들에 대한 일상화된 성추행과 강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주된 ‘쓰임새’ 중 하나가 매춘업이었다. 도시에는 매음굴에서 일하는 여자 노예들이 있었고, 대농장에서는 농한기가 오면 도시 매음굴로 여자 노예들을 ‘임대’하여 수익을 올렸다. 많은 여성 노예들은 부수입을 얻기 위해 항구나 도시에서 매춘을 했다.<sup>10)</sup>

성적 착취야말로 테데의 삶의 주요 모티브이다. 발모랭은 사업차 쿠바로 갔다가 에스파냐 귀족 여성 유지니아에게 반해서 그녀와 결혼한다. 여기서

9) 많은 연구들 중 Yvonne Fabella, “‘An Empire Founded on Libertinage’: the Mulâtresse and Colonial Anxiety in Saint Domingue,” in Nora Jaffary, ed., *Gender, Race, and Religion in the Colonization of the Americas*, pp. 109-124; 로런트 두보이스, 박윤덕 역, 『아이티혁명사』 (삼천리, 2015), 116-118쪽.

10) 이에 관련된 한국 논문으로는 김인선, 『미국 노예제 시기 흑인여성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 흑인여성의 섹슈얼리티, 저항, 생존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41집(2015.5), 1-35쪽.

비올레트가 소개하여 유지니아의 시녀로 데려온 노예가 9살 난 테테이다. 테테는 세네갈 출신 여자 노예가 중간항해 도중 백인 선원에게 강간당해 낳은 몰라토 노예이다. 혁명기에 과들루프(Guadeloupe) 노예 반란의 영웅이 된 몰라토 여자 노예 솔리튀드(Solitude)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이러한 일은 흔했다. 테테의 어머니는 출산 후 발광하여 갓난아기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자살한다. 갓 태어난 테테는 한 영락한 프랑스 부인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가 9살에 발모랭 집안으로 가게 된다. 식민지 노예제 내부의 계서제에서 몰라토에 크레올(creole; 생도맹그에서는 식민지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을 지칭)인 테테는 그나마 상위에 속했다. 열은 피부의 크레올들은 가내 노예로 선호되었다.

테테의 발육 상황을 지켜보던 발모랭은 11살 때부터 그녀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기 시작한다. 프랑스 식민지의 경우 자메이카의 농장주 티슬우드(Thomas Thistlewood)의 일기에 비견할 만한 세밀한 ‘강간 일지’는 없지만 주인이나 감독관에 의한 성적 착취는 노예제의 일상이었다.<sup>11)</sup> 생도맹그의 한 설탕 대농장에서 500명 노예 위에 군림하던 한 감독관은 60명 넘는 아이들을 잉태시켰다.<sup>12)</sup> 테테는 주인의 강간을 또 하나의 ‘집안일’로 생각하며 견딘다. 발모랭에게 테테와의 잠자리는 음주나 독서와 같은 습관이다.

“발모랭은 이렇게 잠자리를 할 때마다 테테가 무슨 생각을 할 지 결코 궁금해 하지 않았다. 말을 탈 때 말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때때로 그는 젊은 노예를 취하기도 했지만 이는 잠깐의 강간 이상으로 가지는 않았고, 그나마 지금 읽는 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처럼 즐겁지도 않았다.”<sup>13)</sup>

테테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주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11) Trevor Burnard, *Mastery, Tyranny, and Desire: Thomas Thistlewood and His Slaves in the Anglo-Jamaican World*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12) Moitt, *Women and Slavery in the French Antilles*, pp. 99-100.

13) 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 105.



불확실한 운명이다. 첫 아이인 아들 장마르탱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주인이 테테 몰래 비올레트에게 입양 보내 버렸고, 둘째인 딸 로제트는 발모랭의 적자인 모리스의 놀이 친구로 같이 키울 것을 허락 받는다. 주인의 변덕에 따라 언제라도 딸과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테테는 깨닫는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자신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러한 운명을 반복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아예 미리 생을 끝내 버렸음을.

서인도제도의 노예제 지역 대부분이 노예 인구의 재생산에 실패했지만 생도맹그의 낮은 출산율은 악명이 높았다. 출생률은 대략 3% 미만이었으며, 절반 이상의 여성 노예들은 출산 경험이 없었다.<sup>14)</sup> 또한 근육강직성 경련(mal de mâchoire)과 같은 특유의 질병에 의한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후자의 경우는 섭의 기후와 전염병, 모체의 영양 부족과 불결한 위생 상태 때문이었지만 백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7년전쟁 이후 노예무역을 통한 노예 공급이 자주 교란되자 비로소 노예들의 출산률 재고에 관심을 쏟게 된 식민지 당국과 농장주들은 산모와 산파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돌렸다. 여성 노예들은 선천적으로 열등하고 모성이 부족하며 주인에게 반항하기 위해 일부러 낙태하거나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절망한 끝에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어머니들도 드물게 있었는데 이 경우 산모는 극형에 처해졌다. 특히 백인들을 독살하려던 1758년 마칸달(Mackandal)의 음모 사건 이후 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서 산파들은 항상 감시와 의심의 대상이었다.<sup>15)</sup>

이러한 상황에서도 테테에게 삶의 의미와 생존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들은 있다. 가족을 만들고 유지할 능력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노예들은 끊임없이 유사 가족을 만들어 서로를 지탱했다. 어릴 적 같이 살던 집의 늙은 흑인 노예 오노레는 테테의 유사 대부가 되어 기니아와 아프리카 전통들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테테의 몸속에 요동치는 아프리카 춤과

14) Moitt, *Women and Slavery in the French Antilles*, pp. 80-100; Geggus, "Slave and Free Colored Women in Saint Domingue."

15) Karol Weaver, "'She Crushed the Child's Fragile Skull': Disease, Infanticide, and Enslaved Women in Eighteenth-Century Saint-Domingue," *French Colonial History*, 5(2004), pp. 93-109. 지식 살해와 관련된 한국 논문으로는 김인선, 『흑인노예의 자식 살해와 모성: 1856년 마가렛 가나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39집(2014.5), 1-38쪽.

음악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그녀의 수호신인 부두교(voodoo) 사랑의 신 에르줄리 목상을 깎아 준 것도 오노레이다. 부두교는 노예들이 가져온 아프리카 신앙이 생도맹그에서 여러 믿음 체계들과 뒤섞여 토착화된 종교이다. 발모랭의 집으로 간 후 그녀의 대모 격이 된 것은 나이 든 흑인 여자 노예인 탕트 로제이다. 당시 대농장에서는 여자 노예 한 명에게 건강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은 탕트 로제처럼 아프리카 전승 지식을 가진 치료사이자 약초사인 경우가 많았으며 산과를 겸하기도 했다.

동시에 탕트 로제는 부두교의 비밀 사제(mambo)로서 칼렌다(kalenda 혹은 kalinda)라고 불리는 노예들의 집회를 주관했다. 아메리카 전역에서 노예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처럼 아프리카식 춤, 노래, 종교적 도취가 어우러진 집회들이 있었으며, 이를 위한 갖가지 조직들이 꾸러졌다. 칼렌다는 테테에게는 아프리카 정체성과 자유를 향한 열망을 일깨워 주었고, 도망노예들에게는 탈주를 위한 비밀 네트워크를 제공했다. 길로이(Paul Gilroy)와 같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연구자들은 음악이야말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영혼이라고 말한다.<sup>16)</sup> 아프리카 음악은 아프리카 문화를 전승할 뿐만 아니라 대서양 세계를 횡단하며 갖가지 문화적 변용을 거듭한 혼종적 문화의 결정체였다. 가사의 대안적 세계관과 특유의 선율을 통해 노예들은 현실에서 거부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 테테는 이렇게 말한다.

“음악은 세월, 기억, 그리고 내 안에 웅크린 그 짐승-두려움-을 날려 버리는 바람이다...세계가 요동친다. 리듬은 바다 밑의 섬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지축을 흔들고 나를 번개처럼 관통하며 내 슬픔을 가져간다. Papa Bondye(부두교의 창조신)가 그 슬픔들을 씹어 삼켜서 나를 정결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북은 두려움을 정복한다. 북은 내 어머니의 유산이며 내 피 속에 있는 기니아의 힘이다. 내가 북과 함께 있으면 누구도 나에게 해를 입힐 수 없으니, 나는 사랑의 여신인 에르줄리처럼 강력하고 채찍보다 더 빨라진다....”

16) Paul Gilroy,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3).

복은 성스러우니 신들이 이를 통해 말하신다.”<sup>17)</sup>

그러나 노예들의 복 소리는 발모랭의 아내 유지니아의 광증에 일조한다.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광기의 피나 계속된 임신과 유산을 탓하지만 사실 유지니아를 미치게 하는 것은 생도맹그에서의 삶이다. 흑인들에 대한 그녀의 미신적 두려움은 절대다수의 노예들에 포위되어 이들을 폭력과 공포로 누르며 사는 백인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 이 섬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발모랭과 유지니아에게 식민지는 “산자와 죽은 자가 손잡고 거니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이지만,<sup>18)</sup> 테테를 비롯한 노예들에게 죽은 자들의 영혼이나 부두교의 신들은 산자처럼 친밀한 존재이다. 아프리카 전승이 말하는 “바다 밑의 섬”에는 죽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봉기의 날이 오면 죽은 자들도 산자들의 군세에 합세할 것이다. 아옌테가 마술적 리얼리즘 기법을 통해 그리는 이러한 주술과 영혼의 세계는 노예제 사회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요소이기도 하다.<sup>19)</sup>

유지니아의 광증이 심해지자 역설적으로 발모랭 일가는 점차 테테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테테 말고는 제대로 된 대화 상대도 없는 발모랭, 테테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유지니아, 테테를 엄마로 여기는 발모랭의 아들 모리스, 테테의 관리 하에서만 돌아가는 집안일들. 실제로 테테가 맡은 직분인 가정부 자체가 노예제의 역설을 입증한다. 백인들은 노예, 그것도 여자 노예의 지성을 결코 믿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가사전반의 관리를 맡겼던 것이다. 대농장에서 여자들은 육체 노동의 위계에서도 최하층에 속했지만, 테테와 같은 가내 노예들의 경우 처우 면에서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왔다. 테테는 부엌에서 일하던 아프리카 출신 노예 감보와 비밀스럽게 사랑에 빠져 처음으로 인간다운 애정을 경험한다.

---

17)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p. 1-2.

18)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 8.

19)예를 들어 Vincent Brown, *The Reaper's Garden: Death and Power in the World of Atlantic Slave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그녀와 비슷한 경우 여성 노예들에게는 제한된 자유로의 통로가 존재했다. 혁명 전 자유를 얻는 통로는 개별적 해방(manumission: 법적, 전면적 해방인 emancipation과 구분)이었는데, 해방되는 노예들의 60-70%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었다. 즉, 노예 첩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은 주인이 여자와 아이들을 해방시킨 경우였다. 프랑스 정부의 흑인법전(Code Noir)은 원래 노예 첩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노예와 자녀들까지 해방시킬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식민지의 법과 세부 규정들은 이러한 해방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수정되었다. 혁명 전 생도맹그의 경우 노예 첩들 중 3-4%(많아도 10% 미만)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0)</sup> 그러나 어미와 자식들 모두 해방시키는 경우는 드물었고, 남자 아이만 해방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법적 절차에 따르는 비용을 피해서 ‘사실상(libre de fait) 해방’인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소유주가 죽거나 파산하면 자유가 위태로워졌다. 유언장을 통해 해방된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마찬가지였다.<sup>21)</sup>

### III. “자유, 평등, 망명”<sup>22)</sup>: 혁명 속에서의 삶과 이주의 경로

프랑스혁명이 발발하면서 발모랭의 대농장에도 불안한 기운이 감돈다. 도망노예들과의 연락책이었던 탕트 로제를 비롯하여 노예들은 하나 둘 모습을 감추고, 곧 아이티혁명 발발을 알린 1791년 노예들의 대반란이 일어난다. 노예들의 무장 집단에 들어갔던 감보는 생라자르 대농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몰래 테테를 방문하여 도망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테테는 친아들처럼 키운 모리스를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망노예들이 몰라토인 로제트를 해코지할까봐 두려워 감보의 요청을 거절한다. 아프리카 전사 계급 출신으로서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감보 역시 가부장적 사고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테테가 낳은 아이가

20) Peabody, “Négresse, Mulâtrese, Citoyenne,” p. 77.

21) Moitt, *Women and Slavery in the French Antilles*, pp. 151-172.

22) 책 제목에서 따옴. Matthew Smith, *Liberty, Fraternity, Exile: Haiti and Jamaica after Emancipatio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14).

자신의 아들인줄 알았던 감보는 로제트가 발모랭의 자식이라는 것보다 대를 이을 수 없는 딸이라는 사실에 더 절망한다. 결국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은 테테의 몫으로 남겨진다.

그날 밤 테테는 발모랭과 모리스를 탈출시켜 주는 조건으로 자신과 딸에 대한 해방 문서를 얻어낸다. 그녀는 그날부터 그 문서를 한시도 몸에서 떼놓지 않는다. 많은 역사가들이 지적하다시피 자유를 위한 여성 노예들의 투쟁에서 문서 작성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테테처럼 문맹인 여성 노예들조차 식민지 체제 내에서 문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해방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민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유색인들은 피부색에 따른 지위의 불안정성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출생증명서, 결혼 증명서, 시민권 증명서, 자녀들의 세례 증명서, 부권 인정 증서, 양도 매매 증서, 소유주의 각서 등등 최대한 많은 문서를 만들어서 공증해 놓는 습관이 있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이나 재산 이전이 벌어져 새 소유주가 이들의 자유민 신분을 문제삼는 경우 이 문서들은 유색인들의 자유민 신분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책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자유의 문서』의 로잘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흑인 자유민들에게 팔려갔던 그녀는 나이 든 하층계급 프랑스 이민자 남성인 뱅상과 여러 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혁명 정부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된 후 그녀는 자신과 아이의 자유민 신분을 위해 여러 방책을 강구한다. 혁명의 혼란과 영국군 침공으로 해방 문서가 공증이 되지 않자 파트너인 뱅상으로부터 해방 문서를 급조하기도 하고, 뱅상을 부친으로 한 아이의 세례 문서를 만들기도 한다. 노예제폐지 여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최대한 안전망을 만들어 놓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sup>23)</sup>

테테 덕분에 가까스로 르캅에 도착한 발모랭 일가는 백인들의 음모, 노예해방령 선포, 투쟁 루베르튀르의 등장 등 아이티혁명의 주요 사건들에 휘말린다. 이후 농장주들이 세상의 종말로 기억하게 되는 1793년, 르캅이 불타고 학살이 벌어질 때 테테는 절망한 발모랭을 일으켜

23) Scott & Hébrard, Freedom Papers, Chapter 2-3 참조.

세워 아이들과 함께 탈출한다. 감보는 루베르튀르의 측근이 되어 혁명의 주역이 되었지만, 두 아이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테데는 결코 혁명에 가담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발모랭의 보호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 그녀는 그와 함께 쿠바로 탈출한다. 테데처럼 수많은 백인들이 노예들과 함께 탈출했고, 이후 농장주들의 선전물들은 이 노예들의 ‘충성’을 폭도들의 ‘배은망덕함’과 대비시켰다. 그러나 주인과 동행하기를 선택한 노예들의 경우 테데처럼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아옌데의 소설은 감보와 테데의 선택을 이분화하여 보여주지만 혁명기 유색인 여성들의 선택은 훨씬 다양했다. 도망노예 집단들에서도 많은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탕트 로제처럼 종교적 지도자로 나선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 과들루프에 서 있는 솔리튀르의 동상은 혁명이 열어 놓은 급진적 권리 투쟁과 군사적 반란의 길에 직접 참여한 여성들의 모습을 대변한다. 아이티독립전쟁에 대한 기록들에는 포탄 속을 뚫고 무기를 나르거나 처형자들을 비웃으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 여성 투사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아이들을 들쳐 업고 나와 프랑스 관무관들에게 노예 해방을 호소한 노예 여성들도 있었고, 여성들을 차별하는 공화국의 임금 정책에 반대하여 투쟁한 해방노예 여성들도 있었다. 그리고 버려진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선취하거나 채마밭을 늘려 수익을 올리는 여성 사업가들도 있었다.

혼란의 생도맹그를 뒤로 하고 발모랭 일가가 선택한 망명길은 당시 수많은 생도맹그 백인들이 택한 길이기도 했다. 생도맹그에서 쿠바 산티아고 항구까지는 거리도 얼마 안 되었고, 쿠바 당국도 망명자들의 운명에 동정적이었다. 다른 많은 대백인들과 마찬가지로 발모랭 역시 횡대서양적인 사업 및 투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섬을 떠났어도 알거지가 되지는 않았다. 봉기 때 살해당한 이웃 농장주의 비밀 계좌까지 사취한 발모랭은 처남인 산초 데 솔라르의 도움을 받아 루이지애나에서 다시 한 번 설탕 대농장을 일으킬 결심을 한다. 프랑스어권인데다 노예제 지역인 루이지애나는 생도맹그 농장주들이 가장 선호한 망명지였다.

로잘리 역시 이후 아이티독립전쟁의 혼란을 피해 쿠바로 피신했다. 여기서 자신의 자유민 신분 문서를 공증 받지만 그녀의 자유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많은 농장주들이 동행한 노예들의 노예 신분을 되살리는 판국이였다. 설상가상으로 대백인들의 뒤를 이어 하층계급 망명민들이 줄을 잇고 1808년 프랑스와 전쟁이 벌어짐에 따라 쿠바 당국은 프랑스 난민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린다. 문제는 1807년 미국의 반노예무역 법령은 노예 이송을 금지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신분으로는 대서양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였다. 결국 로잘리는 10살 난 딸 엘리자베스를 자유민인 대모에게 맡겨서 루이지애나로 보내고, 자신은 아이티로 돌아간다. 이후 로잘리의 행적은 알 길이 없다.<sup>24)</sup>

#### IV. 뉴올리언스에서의 자유: 미국에 도착한 생도맹그 난민 여성들

소설의 2부에서는 1793년에서 1810년까지 이제 제 2의 고향이 된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의 삶을 그린다. 원래 프랑스인들의 정착 식민지였던 루이지애나는 7년전쟁 패배 후 에스파냐로 넘어갔다가 1800년 나폴레옹에 의해 수복되었다. 그러나 생도맹그 상실로 아메리카 제국의 꿈을 접은 나폴레옹은 1803년 이 땅을 헐값에 미국에 양도했고 ('루이지애나 매입'), 덕분에 미국은 국토를 2배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루이지애나의 크레올 백인 사회로 성공적으로 편입한 발모랭은 그리스식의 거대한 장원 저택과 설탕 대농장을 개장한다. 발모랭처럼 미국 남부에 정착한 생도맹그 난민들이 노예제도, 남부의 문화, 인종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많은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sup>25)</sup>

24) Scott & Hebrard, *Freedom Papers*, Chapter 3.

25) 90년대 이후 연구만 몇 가지 언급하면 Carl A. Brasseaux & Glenn R. Conrad, eds., *The Road to Louisiana: The Saint-Domingue Refugees 1792-1809* (Lafayette: University of Southwestern Louisiana, 1992); Susan Branson and Leslie Patrick, "Étrangers dans un pays étrange: Saint-Domingue Refugees of Color in Philadelphia," in David Geggus, ed., *The Impact of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Atlantic World*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01); Paul Lachance, "Repercussions of the Haitian Revolution in Louisiana," in *The Impact of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Atlantic World*; Nathalie Dessens, "The Saint-Domingue Refugees and the Preservation of Gallic Culture in Early American New Orleans," *French Colonial History*, 8(2007), pp. 53-69.

뉴올리언스에서 테테는 예전처럼 가정부 노예 역할을 계속한다. 일단 위기를 벗어나자 테테가 문서로 보장받은 자유는 그야말로 “종이 짝이나 마찬가지(paper thin)”임이 분명해 진다.<sup>26)</sup> 발모랭은 노예가 주인의 생명을 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살 이전에는 해방시킬 수 없게 한 주(州) 법에 따라 테테의 해방을 거부한다. 사실 테테는 주인의 생명을 구했지만 법에 어두운 그녀는 발모랭의 말에 반박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발모랭이 뉴올리언스 유력 가문의 딸인 오르탕스 드 기조와 결혼하면서 다시 한 번 테테의 삶은 불안정해진다. 결국 오르탕스가 성질을 부리면서 로제트는 수녀원으로, 테테는 농장으로 보내진다. 보통 가내 노예들에게 농장 노예로의 강등은 엄청난 충격을 동반했지만, 테테는 대농장에서 노예들끼리의 유사 가족 관계에 편입되어 오히려 공동체를 발견한다. 테테와 친해진 감독관의 아내인 머피 부인은 그녀에게 자신도 “백인 노예,” 즉 아일랜드 출신 계약노동자였다고 털어놓는다.

아이티 독립이 선포되고 쿠바에서 생도맹그 난민 추방령이 내려지면서 테테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속속 뉴올리언스에 도착한다. 생도맹그 출신 백인들의 압력에 굴복한 연방 정부가 1809년부터 반노예무역 법령 적용을 면제해 줌에 따라 수천 명의 흑인 노예들과 자유 유색인들이 유입되었다. 거리에는 프랑스어가 넘쳐나고 그와 함께 생도맹그 문화가 이식된다.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춤추던 콩고 광장(Place Congo)은 곧 부두교 집회 장소가 된다. 뉴올리언스 부두교 역사의 전설적 인물인 여사제 사니테 테테(Sanité Dédé) 역시 생도맹그로부터 온 것으로 묘사된다. 뉴올리언스 특유의 혼종적 종교 문화는 에스파냐 출신 수도사인 앙트완 신부에게서 잘 나타난다. 성인으로 불리는 앙트완 신부는 자신은 에르줄리의 딸이라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테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의 신은 너의 Papa Bondye와 그저 이름만 다를 뿐 똑같다.  
너의 신들(loas)은 내 성인들(saints)과도 같아. 인간의 마음에는  
모든 신성들을 위한 자리가 있지...내 딸아, 여기서는 추문이 되지

26) 아이티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경험한 재노예화의 위험을 연구한 스콧의 표현. Rebecca J. Scott, “Paper Thin: Freedom and Re-enslavement in the Diaspora of the Haitian Revolution,” *Law and History Review*, 29(No- vember 2011), pp. 1061-1087.



않는 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 네 마음대로 부두교를 믿어도 좋다. 주일은 신의 날이니 아침에는 미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콩고 광장에 가서 너의 신들과 춤추렴. 뭐가 문제겠니?”<sup>27)</sup>

나중에 테테는 생도맹그 출신 흑인 해방노예 재커리와 사랑에 빠져 아들 오노레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는 사니테 데테와 앙트완 신부 양쪽으로부터 영세를 받는다. 이렇게 프랑스인, 에스파냐인,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가지고 온 문화들이 섞여서 오늘날까지도 뉴올리언스를 특징짓는 이국적이고 혼종적인 문화를 만들었다.

새로 도착한 난민들 중 최고의 생존 능력을 뽐내는 것은 역시 비올레트이다. 아이티혁명 중 남편 틀레와 사별한 비올레트는 뉴올리언스의 여인들을 대상으로 화장품과 옷을 팔고 조언을 해주는 일종의 미용 사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플라사주(plaçage)를 주선하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플라사주란 백인 남자(때로는 유색인 자유민)와 유색인 여자들 사이의 사실혼 관습을 말하는데 프랑스어권과 에스파냐어권 식민지에 널리 퍼져 있었다. 램퍼트가(Rampart Street)와 같이 오늘날 뉴올리언스의 유서 깊은 프랑스 구역들에는 이 유색인 커플들을 위한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다. 상호 합의에 의해 보호자 남성은 집, 연금,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했다. 비올레트는 유색인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플라사주를 위한 대규모 무도회(Bals Cordon Bleu)를 개최한다. 초대받은 부유한 백인 남성들은 여자들을 고르고 그 어머니들과 교섭하여 플라사주를 시작할 수 있었다. 비올레트는 테테를 비롯한 생도맹그 난민 여성들 여럿을 끌어들이 일종의 사업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녀는 이렇게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며 아들(사실 테테가 낳은 아들) 장마르탱을 위한 유리한 결혼을 꿈꾼다. “그녀의 경험으로 볼 때 열은 색 피부와 돈은 대체로 뒤편지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손자들이 혜택 받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했다.”<sup>28)</sup>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꾸는 신분 세탁이며 자유로의 점진적 여정이다. 인종적

27)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 277.

28)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 360.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들이 흑인이나 더 짙은 피부의 유색인과 결혼하는 것, 즉 이 도정에서 후퇴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실제로 1750년대 이후 인종차별적 조치들이 강화되기 이전 생도맹그에서는 이런 식으로 몇 세대에 걸쳐 계급 상승을 해서 ‘피부색을 씻어내고’ 백인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비올레트의 모습은 생도맹그 출신 혼혈 여성들이 루이지애나에 퍼뜨린 유색인 여성에 대한 성적 스테레오타입(‘뉴올리언스의 퀴드룬 미녀들’)을 보여준과 동시에, 당시 루이지애나 사회에서 유색인 자유민들이 내뿜던 사회적 활력을 재현하고 있다.<sup>29)</sup>

한편 서른 살이 되던 해 테테는 그녀의 해방 문서를 본 앙트완 신부의 개입 덕분에 마침내 자유롭게 된다. 자유의 몸이 되던 날 관청 앞뜰에 앉아 그녀는 환희와 공포 양쪽에 떠난다.

“자유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무 도움도, 보호도, 안전도 없다는 뜻이라는 셀레스틴의 경고나 발모랭의 위협이 내 머리 속에 울리고 있었다. 일거리를 찾지 못하거나 병이 들면 나는 우르술라회 수녀들이 밥을 주는 거지들의 행렬에 서게 될 것이다.”<sup>30)</sup>

실제로 이런 이유로 완전한 해방 대신 반쯤 독립한 노예로 남아 있는 경우들도 많았다. 그러나 어쨌든 테테의 경우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루이지애나로 온 유색인 난민들은 문서 증거를 통해 스스로의 자유민 지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도망 노예로 간주되었다. 이를 악용하여 흑인 자유민들까지 노예로 만드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한 사례로 생도맹그 난민인 아델라이드 메타예(Adélaïde Métayer)라는 한 해방노예 여성은 생도맹그에서 자신과 아이들의 자유를 이중으로 보장했다. 국민공회의 법에 의해 해방되었고, 나중에 옛 주인에게도 돈을 지불하고 해방 문서를 받아낸 것이다. 하지만 전 주인의 사업 파트너가 이들을 발견하고는 전 주인의 빚을 갚으라며 아델라이드와 아이들을 노예 경매에 붙이게

29)Emily Clark, *The Strange History of the American Quadroon: Free Women of Color in the Revolutionary Atlantic World*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3) 참조.

30)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 341.

한다. 뉴올리언스 법정은 아텔라이드의 해방 문서에 어린 아들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아들에 대한 경매를 진행시킨다. 그 후에도 이 채권자는 비슷한 수법을 반복해서 계속 아텔라이드 가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7차례에 걸친 소송 끝에야 그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sup>31)</sup>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데에게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닥친다. 어릴 때부터 가깝게 자라 이제 성장한 모리스와 로제트가 신분과 인종의 벽을 넘어서, 무엇보다 근친상간이라는 금기를 넘어서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 역시 하나의 클리셰인데, 근친상간이라는 주제는 생도맹그를 비롯하여 노예제 식민지를 다룬 소설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모티브이기 때문이다.<sup>32)</sup> 백인 남성들에게 노예들에 대한 무제한의 성적 방종을 허용하는 사회에서 근친상간은 상존하는 위협이었다. 백인 남성들이 근친상간에 대해 지녔던 금기와 매혹이라는 양가 감정은 인종간 결합(métissage)에 대한 양가 감정과도 얽혀 있었다.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모순을 상징하듯 이 소설들의 주인공 여성들은 대부분 비극적 운명을 맞는다. 테데는 근친상간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한다.

“로제트가 팔릴까봐, 혹은 그 애의 아버지가 내게 그랬듯 그 애를 강간할까봐 두려워 그 애를 내게서 떼어놓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 몸, 한 영혼이나 마찬가지였다. 남자들이 소녀들이 다 커서 무르익었는지 보려고 더듬는 식으로 주인님이 그 애를 만지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sup>33)</sup>

보스톤의 기숙학교에 간 이후 확고한 노예제폐지론자가 된 모리스는 로제트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 발모랭에게 경멸로 맞서며 노예제와 근친상간 사이의 인과관계를 꼬집는다.

---

31)Scott, “Paper Thin,” pp. 1072-1087.

32)프랑스 식민지의 경우 Doris L. Garraway, *The Libertine Colony: Creolization in the Early French Caribbea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참조.

33)Allende, *Island Beneath the Sea*, p. 322.

이사벨 아엔데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을 통해서

“근친상간은 아주 심각한 거다, 모리스.”

“더 심각한 건 노예제죠.”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나!”

“큰 상관이 있죠, 나리. 아버지가 노예를 추행할 수 있도록 해 준 노예제가 없었더라면 로제트는 내 누이가 아니었을 테니까요.”<sup>34)</sup>

결국 아무도 근친상간 결혼을 허용치 않자 테테는 도망노예들을 숨겨주는 배의 선장을 만나 선장의 직권으로 배 위에서 둘의 결혼식을 올려준다. 그러나 임신한 로제트가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자녀들의 상속권을 위협할까봐 걱정한 오르탕스는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어 로제트가 투옥되게끔 한다. 당시의 인종차별적 법은 자신의 뺨을 때린 오르탕스를 마주 때린 것만으로 로제트에게 2년 형을 선고한다. 뒤늦게 아내의 공작을 알아챈 발모랭의 개입으로 로제트는 풀려나지만 옥중생활로 건강을 상해서 아들 저스틴을 낳고 곧 사망한다. 소설의 마지막은 그 모든 상실에도 불구하고 테테가 낳고 키운 후손들-장마르탱, 모리스, 저스틴, 재커리와 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의 계보를 상기하며 끝난다. 남자들은 모두 죽거나 떠나버렸지만 여자들은 남아서 가족을 지키고 기억을 전승한다.

“바로 어제도 나는 광장에서 사니테 테테의 마법의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춤추고 또 났다. 때때로 모성과 사랑의 여신인 에르줄리가 와서 내게 씩씩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뛰어 바다 밑의 섬에 있는 내 죽은 이들을 만나러 간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sup>35)</sup>

이렇게 1810년 뉴올리언스에서 테테의 이야기는 가까스로 평화를 찾은 채 끝난다. 그러나 이 시기 루이지애나에서 해방노예 유색인 여성에게 해피엔딩의 전망은 그리 크지 않았다. 미국은 평등의 나라이니 자유 유색인들의 처지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꿈꾸는 비올레트에게 산초는 말한다. “착각은 금물이야. 그들은 영국인, 프랑스인, 에스파냐인들을

---

34) *Ibid.*, p. 413.

35) *Ibid.*, p. 460.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편견이 심하다고.”<sup>36)</sup> 실제로 19세기 이후 루이지애나에서 인종차별적 체제가 강화되면서 노예들은 물론 유색인 자유민들은 점차 증대하는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유의 문서』에서 어릴 때 대모와 함께 루이지애나에 도착한 로잘리의 딸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1830년 프랑스에서 7월혁명과 식민지 개혁의 소식이 들리자 그녀는 가족을 이끌고 프랑스로 향한다. 이후로도 이 집안은 인종차별을 피하고 사회적 상승을 이루기 위하여 프랑스, 벨기에, 멕시코, 루이지애나 사이를 중횡무진 오갔다.<sup>37)</sup>

## V. 결론: 자유의 의미

평론가들이나 독자들은 이전 아옌테의 주인공들에 비할 때 테테는 적극성과 진취성이 떨어진다고 종종 지적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테테의 극단적으로 제약된 사회적 조건을 생각할 때 납득할 만한 인물 설정이며, 동시에 노예제 사회에서 저항이나 주체성(agency)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프랑스혁명과 아이티혁명 이후 노예제에 대항한 자유나 저항은 으레 보편적인 선언문과 노예해방 법령, 물리적인 직접 저항이나 무장투쟁을 통한 급진적 권리 획득, 더 나아가 독립 국가의 수립(black nationalism)과 결부되었다. 그러나 노예제 사회 속에서 살던 이들에게, 특히 유색인 여성들에게 자유란 한 번의 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 끝없이 자신과 주변의 네트워크를 재창조하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이 속에서 테테, 비올레트, 로잘리들은 역사적 급변의 와중에 최대한 자신이 아는 자유로운 삶에 다가가기 위해 애썼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혹은 재노예화의 위협을 피해 대서양 세계를 떠돌아다녔다.

유색인 여성들의 역사적 경험은 자유에 대한 기존의 법적, 정치적 관념들을 재고하고 이에 대해 보다 인류학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한다. 가부장제는 노예제 사회의 유색인 여성들을 이중으로 억압했다. 게다가

---

36) *Ibid.*, p. 359.

37) Scott & Hebrard, *Freedom Papers*.

유색인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 파트너나 보호자에게 예속된 경우가 많아서 항상 불안정했다. 테테와 같은 이들에게는 법뿐만 아니라 결혼, 동거, 후원과 피보호 관계 및 각종 유사 친족관계들(fictive kinship)과 같은 사적인 연결망이 자유를 얻기 위한 주요 자원이었다. 또한 직접적 저항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교섭과 타협, 그리고 교묘한 조종(manipulation)이 자유를 획득하는 수단들이었다. 선입견과 달리 유색인 여성들은 문서에 입각한 서구 법 체제를 이용하는 데에 놀라울 정도로 기민했다. 이러한 모습은 아이티혁명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카프카(Judith Kafka)가 이야기하듯 자유를 위한 여성 해방노예들의 투쟁은 많은 경우 추상적 대의가 아니라 특정 인물들(농장주, 관리인, 공화국 관료, 군사 지휘관)과 특정 상황들(임금이나 휴일 정책, 소유주의 변화, 정치적 혼란)에 결부된 일상적, 점진적 노력들로 이루어졌다.<sup>38)</sup>

유색인 여성들이 자유를 일궈내는 데에 특히 중요한 요소는 가족이었다. 가족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은 자유와 핵심적으로 결부되어 있었다. 테테의 삶에서 보듯이 이들에게 자유란 자신의 의향대로 파트너를 고르고 아이들을 빼앗길 염려 없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 제도와 형태는 정부와 권력자의 최우선적 관심사이기도 했다. 구체제 프랑스 정부로부터 독립 후 아이티 지배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자들은 교회와 국가에 의해 승인받는 결혼을 장려했다. 법적 결혼에 의한 가부장적 가족은 안정적 임금 노동 체제 및 새로운 사회질서의 등뼈로 칭송되었다. 그러나 이는 해방노예 여성들의 자유 개념과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아이티의 실제 사회적 조건과도 맞지 않았다.<sup>39)</sup>

이들에게 가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변화하는 것이었다. 당국이 아프리카적이고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난했던 가족이나 성적

38)Judith Kafka, "Action, Reaction and Interaction: Slave Women and Resistance in the South of Saint Domingue, 1793 -94," *Slavery and Abolition*, 18(1997), pp. 48-72.

39)Elizabeth Colwill, "Freedwomen's Familial Politics: Marriage, War and Rites of Registry in Post-Emancipation Saint-Domingue," in K. Hagemann, G. Mettele & J. Rendall, eds., *Gender, War and Politics: Transatlantic Perspectives, 1775-1830* (London: Palgrave, 2010).

결합의 형태들(혼전 성교, 미혼모와 사생아, 일부다처제, 여성 가장들, 대부모 관계, 플라사주와 같은 사실혼, 후원과 피보호)이 이들에게는 자유를 위한 현실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이었다. 테테 역시 해방 후 재커리와 사실혼 관계로 아이들을 낳으면서도 법적 결혼을 하려는 생각은 품지 않는다. 그녀에게 가족은 자신의 아이들과 유사 대부모들, 그리고 이웃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였다. 생도맹그 노예들의 경우 늦은 나이에야(평균 40대 중후반) 사실혼 파트너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적 결혼은 가족의 최종 형태를 확정하는 것이었지 가족 관계의 핵심은 아니었다.<sup>40)</sup> 현재에도 아이티 부부관계의 60-85%는 plasaj라고 불리는 사실혼이고, 30-60%의 가족은 여성이 가장이다.<sup>41)</sup>

동시에 젠더는 노예제 사회의 유지나 해체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였다. 두보이스의 말처럼 생도맹그와 같은 인종주의적 노예제 사회는 “정신분열적 사회”였다. 법은 계속 유럽계와 아프리카계 주민들을 갈라놓고 인종을 엄밀하게 구분 지으려 했지만, 정작 발모랭과 같은 백인들은 노예들을 강간하고 유색인 첩들을 들여 계속 혼혈 인구를 늘임으로써 스스로의 체제를 좀먹었다.<sup>42)</sup> 생도맹그는 아메리카 식민지들 중 자유 유색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사회였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이념은 성(性)과 젠더를 이용했다. 비올레트와 같은 유색인 여성은 백인 남성을 타락시키는 성적 방종(libertinage)의 화신으로 묘사되었으며, 백인들은 이 과도한 성(性)적 이미지에 유색인 계급의 열등성을 투사했다. 반면 백인 여성은 순결과 정절의 상징으로서 백인 피의 순수성을 담보하는 매개체로 간주되었다. 노예제가 무너진 후에도 가부장제와 억압적 젠더 이념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남거나 재강화되었다. 아이티에서는 노예해방이 전쟁(혁명전쟁 및 아이티독립전쟁)과 맞물려 진행되었고 그 유산으로 사회가 군사화되어 젠더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젠더에 입각한 이러한 권력 관계는 사료 형성을 결정지었다. 아이티혁명의 역사는 혁명 전 여성 노예들을 둔감하고 동물 같은 존재로 묘사한 사료

40) Moitt, *Women and Slavery in the French Antilles*, p. 86

41) Colwill, “Freedwomen’s Familial Politics,” p. 71.

42) 두보이스, 『아이티혁명사』, 116쪽.

일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솔리튀드와 같은 여성 투사들, 비올레트와 같은 여성 사업가들, 로잘리처럼 기민한 어머니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단 말인가? 바바라 부시는 아직 여성 노예들의 삶이 ‘진지한’ 역사학의 주제조차 아니었던 시절 자신의 경험을 토로한다. 그녀는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크레이턴(Michael Craton)이 노예 노동자들에 대해 남긴 선구적 저작인 『보이지 않는 사람(남자)을 찾아서(Searching for the Invisible Man)』를 모델로 삼아 “보이지 않는 여자 노예들”을 찾아 나섰다.<sup>43)</sup> 일단 찾기 시작하자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여자 노예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는커녕 온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료들에 재현된 여성 노예들은 거의 전적으로 기록자인 백인 남성들의 욕심, 환상, 두려움, 욕망, 그리고 당대 젠더 이념의 산물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에만 관심을 쏟았고, 반대로 노예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이나 가장 내밀한 사생활을 주인으로부터 감추었다. 주인들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저항 행위들이나 자율성의 증거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sup>44)</sup>

그렇다면 우리는 테테와 같은 여성 노예들의 삶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부시는 이 사료들을 “결을 거슬러(against the grain)” 읽으며 사료의 형성에 개입한 식민주의 이념을 내파하고, ‘상상적 공감능력(imaginative empathy)’을 동원하여 지워진 이들의 삶을 재구성했다. 부시를 비롯한 1세대 연구자들이 경험했듯이 주류 역사가들의 사료 실증주의는 이러한 여성사가들의 작업을 ‘진짜’ 역사의 하위에 두거나, 그들이 참조한 사료들을 ‘가치 없는’ 혹은 ‘신빙성 없는’ 자료들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노예제에 대한 여성사적 연구들은 지난 20여 년에 걸쳐 침묵된 여성 노예들의 삶과 경험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노예제에 대한 지배적 개념들(폭력, 종속, 저항,

43) Michael Craton, *Searching for the Invisible Man: Slaves and Plantation Life in Jamaic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44) Barbara Bush, “Searching for the “Invisible Woman”: Working with (and subverting) the archives” in *Working With the Past*, organised by Asiya Islam, Equality and Diversity Adviser,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on the 12th March to celebrate Women’s History Month and to promote the rich Women’s Library archives, recently relocated to LSE library.



주체성)을 급진적으로 재고하며, 궁극적으로 사료 형성에 관련된 권력 체제 자체를 규명하고 전복하여 역사학적 방법론을 쇄신하는 데 기여해 왔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연구는 극단적 폭력을 경험했던 역사적 주체들에 대한 역사가의 윤리적 자세 일반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다. 여성 노예들을 억압했던 폭력에는 비단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서고에서 이들의 존재를 지우거나 왜곡하는 인식론적 폭력도 포함된다. 발모랭이 테테가 자신에 대해 평생 품었던 격렬한 증오에 대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인 계급은 노예들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했다. 이는 그들이 만든 사료를 통해 역사가들에게로 옮겨왔다. 그리하여 트루요(Michel-Rolph Trouillot)가 비판하듯 성실한 실증주의 역사가들은 종종 18세기 농장주들의 관점을 되풀이하곤 했다.<sup>45)</sup> 여성 노예를 침묵시키는 문서고의 인식론적 폭력을 해체하는 작업에 천착한 푸엔테스(Marisa Fuentes)는 자신의 작업이 “역사의 윤리, 그리고 흑인들의 삶을 침묵시키고 이들을 억압했던 폭력에 대한 무관심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고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역사가들의 의무는 우리의 역사학적 담론과 실천 속에서 그들의 종속과 상품화가 또 다시 영속화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가 할 수 있는 과거에 대한 “보상(redress)의 몸짓”일 것이다.<sup>46)</sup>

창원대학교, yunkwon1794@gmail.com

키워드(Key Words):

아이티혁명(Haitian Revolution), 여성 노예(female slave), 자유(liberty), 젠더(gender), 이사벨 아엔데(Isabel Allende)

(투고일: 2016. 10. 23, 심사일: 2016. 11. 05, 게재확정일: 2016. 11.10)

---

45) 미셸-롤프 트루요, 김명혜 역, 『과거 침묵시키기』 (그린비, 2011), 192-195쪽.

46) Marisa J. Fuentes, *Dispossessed Lives: Enslaved Women, Violence and the Archiv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6), p. 12.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을 통해서

<국문 초록>

유색인 여성들과 아이티혁명기 자유의 여정  
: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을 통해서

권 윤 경

이 논문은 유색인 여성들, 특히 노예 여성들과 이주를 중심에 놓고 아이티혁명기에 벌어진 자유를 위한 투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자 한다. 혁명기 유색인 여성들은 더 나은 자유의 조건을 찾아, 그리고 재노예화(reenslavement)의 위험을 피하여 대서양 세계의 경계를 가로질렀다. 여기서는 이사벨 아옌데(Isabel Allende)의 소설인 『바다 밑의 섬』을 안내서 삼아 소설의 내용과 역사적 연구들을 병치하여 아이티혁명기 유색인 여성들의 자유로의 여정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아이티혁명의 서사는 정치적, 법적 자유와 무장 투쟁을 중시하지만 유색인 여성의 경험으로 초점을 옮기면 자유의 의미와 자유를 얻는 경로는 훨씬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발턴 여성들의 침묵된 삶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노예제와 혁명 연구에서 자유, 저항, 주체성(agency)의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다.

<Abstract>

Isabel Allende's *Island Beneath the Sea* and Woman of Color's Journey for Liberty at the time of Haitian Revolution

Kwon, Yun Kyoung

This article attempts to redefine the struggles for liberty in the era of the Haitian Revolution from the experiences of the colored women (female slaves in particular). In this age of the Atlantic Revolution, women of color crisscrossed the Atlantic communities for the sake of better conditions for preserving liberty or to avoid the threat of re-enslavement. Here, we follows a female slave's transatlantic odyssey for liberty from revolutionary Saint-Domingue through Cuba to New Orleans, which Isabel Allende depicts in her novel, *The Island Beneath the Sea* (2009). Complemented by historical researches about female slaves and women of color, her story illuminates other aspects of liberty articulated by family, fictive kinship and sisterhood that were invisible in the established narratives of the Haitian Revolution based on armed struggles and political independence. By reconstructing the silenced voices of those subaltern women, we will be able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liberty, resistance and agency in studies of the Haitian Revolution and slavery.